

문재인, 민주당 영남 경선 '압승'

득표율 64.7%로 1위, 누적 합계 58.99%로 본선 직행 가능성 높아... 이재명 18.5% 안희정 16.6%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지난달 31일 영남권 순회경선에서도 압승했다. 호남과 충청 순회경선에 이어 3연승이다.

문 후보는 부산 동래구 부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12만 8,429표를 얻어, 득표율 64.7%로 1위를 기록했다.

문 후보는 현장투표 ARS투표 등 모든 투표에서 승리를 거두 당심과 민심을 모두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가 이날 경선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면서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3만6780표로 득표율 18.5%, 안희정 후보는 3만2974표, 득표율 16.6%를 얻어, 2위와 3위에 머물렀다. 최성 후보는 403표로 0.2%를 얻었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지난달 22일 치러진 영남권 투표소 투표와 29~30일 치러진 ARS 투표, 이날 실시된 대의원 현장투표를 합산한 수치다.

앞서 문 후보는 첫 경선지역이었던 호남권에서 14만2343표(60.2%), 뒤이은 충청권에서도 6만6453표(47.8%)를 얻어 선두에 올랐다.

영남권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누적 합계로 33만1417표를 얻어 58.99%의 득표율로, 결선투표 행(行)의 기준치인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문 후보 측은 당초부터 이날 경선을 두고 '60% 이상' 득표율을 거론하는 등 1위를 자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영남권은 문 후보의 '뒷밭'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고창이 경남 거제이고, 부산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의 지

냈다.

문 후보는 지역조직을 구성할 때 이같은 자신의 '뿌리'인 영남권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거돈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부산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기반을 탄탄하게 닦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에선 "부산에서 '넥타이' 좀 땀다고 하면 문 전 대표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문 후보 측 내부에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의원 등을 향해 끝까지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구 현역인 김부겸·홍의락 의원 등이 안 후보를 돕고 있는 만큼 대구·경북 표심이 안 후보로 몰리면서 '이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문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문 후보 측은 마지막 경선지역인 수도권·강원·제주권 경선 또한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안·이 후보는 총 선거인단의 60%가 몰려있는 수도권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문 후보와의 '결선투표행(行)'을 도모해보겠다는 입장지만, 문 후보 측은 이미 '대세바람'이 분 만큼 결선투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전병헌 더문캠 전략기획본부장은 "오늘의 결과는 문 후보가 '정권교체 적임자'로서 국민들에게 낙점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영·호남 과반의 대세가 수도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 한 관계자는 "다른 당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에서 '압도적 우세'를 점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안·이 후보들의 지지세(勢)를 모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부산 연제구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 순회경선에 참가한 문재인 전 대표가 연설을 마친 뒤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달 31일 절반이 넘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 선거인단 현장투표 61.8%, 여론조사 46.7% 등 총 합계 54.15%의 득표율을 얻어 경선에서 승리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2위는 총 19.3%를 얻은 김진태 의원(현장투표 21.1%, 여론조사 17.5%)이 차지했으며 3위 이인제 전 최고위원 14.85%(5.1%, 24.6%), 4위 김관용 경북지사 11.70%(12.2%, 1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 50%,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투표 50%를 합산해 결정됐다. /뉴시스



유성엽 의원, 정읍 고창 교육 특교세 115억 확보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읍·고창, 국민의당)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고창 교육지원청 청사 개축(97억 원, 지방비 포함) 및 정읍 정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18억 원)이다.

고창 교육지원청 청사는 1980년도에 신축한 청사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으며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교육지원청 청사 개축사업이 개축심의위를 통과했고, 총 사업비 97억 원 중 국비 부담분 30%에 해당하는 29억 원을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정읍 정주고 또한 기숙사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높았다. 건조명기 조도가 낮고,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숙사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18억 원을 전액 확보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위원장은 "정읍·고창의 경우 교육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상황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꾸준히 이어졌다"며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가 정읍·고창의 교육현장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해수부 "세월호, 6일 철재부두에 거치할 것"

거처 작업 소조기에 진행... 거처 후 안전조사·방역작업 뒤 미수습자 수습

목포신항에 도착한 세월호가 오는 6일 철재부두에 거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달 31일 "최종 선체 하중을 고려해 모듈 트랜스포터 관련 설계를 조정한다"며 "462대가 동원되며 동원이 완료하면 한 줄당 76대씩 총 6줄을 조립하고, 시운전을 거쳐 4월 6일께 세월호를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반잠수식 선박인 '화이트 마린' 호의 선미(배꼬리)가 부두에 접안해야 한다. 이후 세월호를 육상 부두로 운반할 모듈 트랜스포터

가 진입한다.

하지만 아직 반잠수식 선박-세월호 간 고정 해체, 배수작업(선체 내 해수 및 유성혼합물 등), 중량물을 끌어당기는 기계장치인 권양기 6대를 선미 측에 설치하는 작업 등이 남았다.

세월호의 육상 거치를 위한 모듈 트랜스포터 준비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일부터 3일까지 총 462대(실제 동원 456대, 예비 6대)를 동원해 조립(1줄당 76대·총 6줄)과 시운전(2~3일)을 거쳐 세월호를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거치한다. 이 과정만 약 4~5일 정도가 소요된다.

모듈 트랜스포터로 세월호를 육상으로 운반하는 작업은 정밀한 조정이 필요한 작업이다. 세월호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선박과 부두의 높낮이 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조기(4월 4~8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해수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4월 첫째 소조기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예정되며 급변 소조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세월호의 육상거치가 완료되면 선체 안전도 및 위해도 조사, 방역 등을 거쳐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 내부의 유류품 등을 정리하는 선체정리 작업이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미수습자 수색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 단장은 "효율적인 수색과 조속한 미수습자 수습은 선조위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색 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로켓캠 같이 이런 저런 수색방안에 대해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현장수습본부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여기에서는 선내 수색, 신원확인 및 장례지원, 유실물 관리, 가족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뉴시스

추미애 "국민의당 띄우기" 도 넘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당 경선홍행 보도가 잇따르자 "도를 넘은 국민의당 띄우기"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참여 규모나 지역분포만 보더라도 격이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의도적인 '국민의당 띄우기'가 사실과 좀 (다르고) 지나쳐다, 라는 생각이 든다"며 "단순 참여자 숫자만 비교하더라도, 민주당은 36만 명 이상이고 국민의당은 겨우 11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